

# 제일모직, 첨단소재 생산 “도약”

## 섬유에서 LCD 소재까지 ... 수출비중 확대로 글로벌 사업 강화

제일모직이 창립 55주년을 맞아 첨단소재 생산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일모직은 9월11일 경기도 의왕에 있는 연구개발(R&D)센터에서 개최한 창사기념식에서 <첨단소재와 감성의 크리에이터>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첨단소재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1954년 창립된 제일모직은 삼성물산(1952년), 제일제당(1953년)과 더불어 삼성그룹의 모태 기업으로 불린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섬유사업으로 한국의 산업화를 앞당겼고, 1980년대에는 패션브랜드 시대를 열었다”며 “1990년대 진출한 합성수지 사업은 당시 국가 전략사업이었던 석유화학 산업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자랑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전자소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는 휴대폰, LCD(Liquid Crystal Display) TV, 반도체 산업 분야에 핵심소재를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합성수지와 전자소재 부문의 수출 비중이 각각 80%와 94%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사업구조가 정착됐다고 말했다.

현재 제일모직의 매출 비중은 화학(47.6%), 패션(28.1%), 전자소재(21.9%), 직물(2.4%) 순으로 화학 분야가 주력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14>